

[육·신·영·넋·혼·백]

사람은 ‘육·신·영·넋·혼·백’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육

육이란 세월에 따라 성장하고 노쇠하며,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몸을 말한다.

신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모든 생명체나 물체에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형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신은 물체가 아닌 기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모습을 지니고 생명체와 같은 행위를 한다.

사람에게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비롯해 동물, 식물, 사물 등 모든 물체에는 신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신, 동물에는 동물신, 식물에는 식물신, 사물에는 동토신이 있다.

사람의 육이 살아 있을 때는 육과 신이 동시에 살아가지만, 육이 죽으면 신은 그 육을 떠나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동물이 죽으면 동물신이 빠져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신이 빠져나와 신의 세계로 간다. 물체도 깨지거나 분해되면 그 물체 모습 그대로의 동토신이 신의 세계에 생겨난다. 이 지상 세계의 복제판과 같은 모습이 신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동토신

동토신은 사물의 신을 말한다. 형상을 가진 모든 물체에는 그 형체 그대로의 신이 있는데, 이를 동토신이라 한다. 이러한 동토신이 사람을 병들게도 하는데, 옛사람들은 일찍이 이 동토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그 한 예가 ‘동티난다’라는 말이다.

판소리 <변강쇠타령>에는 변강쇠가 도끼로 장승을 패어 땀감으로 쓰니, 장승들이 변강쇠에게 병 하나씩을 주어 장승처럼 뻗뻗하게 늘어진 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장승의 신 즉, 장승의 형체를 가진 동토신이 그리한 것이다.

영

하나님전에서 창조하신 ‘영’은 하나님전의 명과 법이 없이는 죽지 않는다. 육과 신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영은 영원히 살기에 ‘영생’이라 한다.

영은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생명의 씨앗이다. 흔히 신과 영을 구분 없이 부르지만, 대부분은 신을 칭하는 말들이다. 생명체이든 사물이든 하나의 형상이 존재하면 그 안에 그와 똑같은 모습의 기로 이루어진 형체, 즉 기체가 존재하며, 그러한 기체를 신이라 한다. 영은 바로 그 신 안에 머물며, 신의 주체가 되는 존재이다.

신도 육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소멸된다. 신이 죽으면 그 신 안에서 민들레 흙씨와 같은 모습이 연기처럼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신의 몸을 빠져나와, 바람 따라 물 따라 자연에서 흐르다 어느 자리에 붙으면, 그 모습으로 다시 육과 신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영의 삶은 반복되며, 이것이 바로 윤회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돌, 나무, 풀, 어족, 동물, 사물, 곤충 등 무수히 많은 육과 신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전생을 거쳐 온 실체가 바로 ‘영’이다. 자신의 전생이며, 현생이며, 후생의 씨앗이 육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바로 영이다.

영은 최초의 삶 이후, 단 한 번의 끊임도 없이 삶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영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삶으로 인해 영에는 과거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오직 ‘영’만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본신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본신의 영향 아래 놓인 사람들은 진실을 알리는 영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을 구하고자 한다면 영성을 찾아야 하며, 이는 본신으로부터 벗어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넋·혼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활해 오면서 익힌 모든 기억이 혼이며, 혼을 담고 있는 것이 넋이다. 그래서 넋·혼이라 한다. 넋은 사람신과 형체가 같으나 사람신이 말도 하고 행위도 하는 반면, 이 넋은 그 자체로만 존재한다. 또, 사람 몸에서 사람신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지만, 넋·혼이 빠지면 사람이 죽지는 않으나 대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어 기억상실이 된다. ‘넋 나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신과 함께 넋·혼도 육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때 대개의 넋·혼은 악신들에 의해 잡아먹히게 된다. 악신들이 사람의 넋·혼을 먹게 되면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사람신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악신들은 그렇게 변신하여 조상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신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도 대개는 거기에 속게 된다. 실제로 진짜 조상신들은 악신들에 의해 해를 입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데, 거의 후손 몸에 들어가 있다.

백골신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나중에 뼈만 남게 되는데, 이 뼈에서 또 하나의 신이 발생하게 되니 이를 백골신이라 하며, 사람신과는 다른 존재이다. 묘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산화라 하는데, 터가 좋은 명당자리가 아니고서는 백골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백골신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 집안에 풍파가 많아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을 하면 이러한 영향이 없다.

[사람신과 본신]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 운명이 있다.
하나는 사람신의 운명이며, 다른 하나는 본신의 운명이다.

사람신

사람이 육체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면 신은 기체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사람신은 자기 안에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신을 말하는데, 육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고, 육이 병들면 같이 병들며, 육이 노쇠하면 같이 노쇠한다. 꿈을 꿀 때 꿈속에서 활동하는 '나'가 바로 나의 사람신이다. 사람신은 육이 생명을 다하면 육을 빠져나와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대략 500년에서 1,000년을 산다.

본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사람신이 아닌 다른 신이 자기 안에서 자신의 육체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신을 '본신'이라 한다. 본신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악신의 체제로서,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자리잡은 악신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본신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니, 본신의 종류에 따라 성격, 기질, 식성, 체질, 생김새 등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본신은 선천시대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 안에 자리잡아 왔으며, 이 본신에 막혀 사람은 결코 신의 세계에 담긴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륵이니라”(요한계시록 13:18)라고 하심이다. 그 많은 종교들도 신들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니 나라와 족속별로 그 신앙이 다르다.

이제는 후천이 되어 하늘의 모든 법이 바뀔에 따라 '대우주 하늘 제국천'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선천의 악신들의 체제인 본신으로부터 벗어나, 본신의 삶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동안 길게 잡아 백여 년에 이르는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은 사람신의 삶을 위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본신에 의해, 본신을 위해, 본신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의 삶이란, 본신이 소인 사람은 소처럼, 호랑이인 사람은 호랑이처럼, 돼지인 사람은 돼지처럼, 뱀인 사람은 뱀처럼, 본신의 기질대로 살아가면서 본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자리잡은 본신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하기에 본신의 힘이 강하면 세상에서의 이름도 크고, 본신의 힘이 약하면 세상에서의 이름도 작았다. 여기에는 사람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사람신은 마치 하나의 부속품처럼, 육이 자라면 함께 자라고 육이 노쇠하면 같이 노쇠하며, 본신이 지배하는 육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결국, 사람의 육이란 자신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본신의 삶을 대신 살아 주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사람의 몸에서 그동안 머물고 있던 무수히 많은 신들이 빠져나온다. 전생의 인연을 통해 들어온 신, 의식주를 통해 들어온 신, 조상신, 동토신 등 여러 부류들이 연기처럼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때 사람신과 본신도 나온다. 몸 밖으로 나온 사람신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사람신은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대비나 준비도 없었으며,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혼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본신은 그동안 사람의 몸속에 머물면서, 육의 생기를 취하고 그 사람의 육을 이용하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머물고 있던 사람의 육에서 나와 이사 가듯 또 다른 머물 곳인 태어나는 육을 찾아 떠난다.

이때부터 사람신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신의 세계에서 사람신은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온갖 악신들에게 쫓겨 다녀야만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람신은 죽을 때 육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죽었다면 다리를 잃은 상태 그대로,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져 죽었다면 뼈가 부러진 상태 그대로, 노환으로 죽었다면 늙고 쇠약한 그대로, 병으로 죽었다면 그 병과 고통을 안은 채로 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결국, 운 좋게 악신들에게 잡혀 죽지 않더라도 사람신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신의 세계의 삶뿐이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 근근이 연명하는 사람신으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신의 운명이다. 사람의 육이 본신에게 종속되어 본신의 삶을 대신 살아 주는 동안, 사람신은 육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신의 세계를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육을 떠난 후 맞게 된 사람신의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동안의 삶이 본신의 삶을 대신 살아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신, 즉 자기의 사람신의 운명을 찾아 살아야 할 때이다.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람신의 삶을 찾게 하여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본신을 제압하고, 본신의 삶이 아닌 사람신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사람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음은 하늘이 후천이 되어 악신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라 하심이니 믿는 자는 그 악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이란 신의 구원이지만 육의 구원이 아니다. 이 땅의 사람은 태어나서 대략 100년이면 모두 죽는다. 구원한들 얼마나 더 살겠는가. 하지만, 신의 세계는 다르다.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육의 세계 100년의 삶을 준

비하는 것이며, 육의 세계에서 100년은 신의 세계 1,0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데, 사람은 악신들에게 종속되어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신의 세계에서 1,000년의 삶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이거늘, 믿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지금까지 그 믿으라 한 자들도 죽어서 간 신의 세계에서는 후손의 몸에 숨어 살고 있을 뿐이다.